

들어가며

Our children swoon before us, and we cannot give them bread.
우리 아이들이 눈앞에서 쓰러지는데 아이들에게 빵을 줄 수가 없네.

- 아일랜드의 시인 제인 프란체스카 와일드(Jane Francesca Wilde)가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한창 진행되던 1847년에 발표한 시 「대기근의 해(The Famine Year)」의 일부이다. 제인 프란체스카 와일드는 동화 「행복한 왕자」를 지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어머니이다. -

※ 아래 편지 디자인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함.



2026년 5월 초 더블린을 여행할 때였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대기근 추모비가 문득 궁금해서 아침 일찍 숙소에서 나와 리피강 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 달리며 운동하는 사람 몇 명만 보일 뿐 강변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시야에 추모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개 한 마리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자 충격에 휩싸인 얼굴과 아픈 몸, 해진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가로 걸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져, 먼 나라에서 온 여행자인 저 역시도 잠시나마 숙연해졌습니다.

대기근 추모비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범선 지니 존스톤(Jeanie Johnston)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대기근 당시 아일랜드인들을 주로 캐나다 퀘벡으로 실어 나르던 범선을 복원한 배였습니다. 추모비가 현대의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기근으로 굶주리며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한다면, 복원된 범선은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는 듯했습니다. 추모비와 범선 맞은편에는 EPIC 아일랜드 이민 박물관(EPIC The Irish Emigration Museum)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간 아일랜드인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더블린을 여행하는 동안 대기근 관련 장소와 조형물을 마주하면서, 대기근이 아일랜드 사회에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아일랜드인의 집단 기억(한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겪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갖는 공통의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그 인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 사례에는 식민지 지배, 시장과 정부의 역할, 빈곤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쟁점이 얹혀 있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오늘날의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생각해 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넓혀 가길 바랍니다.



△ 더블린 리피강 변에 정박해 있는 범선 지니 존스톤. 전경의 구조물은 196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작가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의 이름을 딴 다리의 일부이다.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EPIC 아일랜드 이민 박물관은 아일랜드의 정체성이 이주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또한 수많은 이민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를 배경으로 하지만, 공통된 동기와 공유된 경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대기근은 아일랜드 경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있는 리피강 변을 걷다 보면, 빼만 앙상하게 남은 채 다 해진 옷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나타낸 조형물과 마주치게 된다. 1800년대 중반(1845~1851년)에 발생한 대기근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추모비이다. 이 조형물에서 사람들은 가슴에 보따리를 부둥켜안거나 쓰러진 가족을 등에 업고 힘겹게 발을 내딛고 있다. 더블린 외에도 아일랜드 곳곳의 공원이나 거리에서 대기근을 떠올리게 하는 예술 작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교육과 행사도 자주 열리는 편이다. 오늘날의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고소득 국가*로 꼽히지만, 아일랜드인들은 대기근을 단지 과거의 비극일 뿐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지금의 아일랜드 경제·사회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 2025년 아일랜드의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13만 1,593달러로,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버뮤다(영국의 해외 영토),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출처: 세계은행).

감자 역병이 발단이 된 대기근

대기근은 감자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시작되었다. 감자에 역병이 돌아 잎이 말라 죽고 속도 썩어 감자를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역병 증상이 처음 나타난 1845년에는 일부만 피해를 입었지만, 이듬해인 1846년에는 감자 수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 이로 인해 굶어 죽는 사람이 잇따라 발생했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이가 미국·캐나다·호주 등 새로운 터전을 찾아 아일랜드를 떠났다. 약 800만 명이던 아일랜드 인구는 대기근이 진행되는 동안 약 660만 명으로 18% 감소했다.**

** 출처: Breandán Ó hÉithir, *A Short History of Ireland*, The O'Brien Press, 2016, p. 32.



△ 더블린 리피강 변에 세워진 대기근 추모비(Famine). 아일랜드 조각가 로언 길레스피(Rowan Gillespie)의 1997년 작품.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감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아일랜드 농민들

감자 역병은 아일랜드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다른 지역에서도 감자 역병이 발생했다. 그러나 감자 역병이 대기근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 곳은 아일랜드뿐이었다. 왜 아일랜드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아일랜드의 많은 농민이 영국인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다. 이들에게 감자는 더없이 알맞은 작물이었다. 감자는 쌀쌀하고 습한 기후에서도 잘 자랐고, 빵의 재료인 밀보다 재배 비용이 낮았으며, 영양도 풍부했다.*** 따라서 빌린 땅에 감자를 심어 가족의 식량으로 활용하는 농민이 많았다. 대기근 이전 기준으로, 아일랜드 인구의 약 3분의 1이 감자를 주된 식량으로 삼았을 정도로 감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 출처: 박선미, 『전염병의 지리학』, 갈라파고스, 2022, 47쪽.

농민들은 감자 외에 밀, 귀리, 보리 등도 재배했지만, 이 작물들은 먹기 위한 식량 작물이 아니라 주로 판매하기 위한 현금 작물이었다. 이런 작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 번 돈으로 농민들은 지주에게 임대료를 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병이 퍼지자 먹을 것은 감자뿐이던 아일랜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기근 앞에서 드러난 자유방임주의의 한계

그 시기 아일랜드를 지배하던 영국 정부 내에서는 산업 자본주의와 함께 확산된 자유방임주의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자유방임주의는 경제 활동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사상이다. 이에 따라 당시 영국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아일랜드 상황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현실과 크게 어긋났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농민들은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구매할 여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병 피해 지역으로 식량을 신속하게 운반하고 분배할 물류와 행정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 영국 정부 차원의 구호 활동, 민간 자선 단체와 종교 단체 등의 지원이 있었지만, 식량 부족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신속히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식량 위기가 발생할 때 많은 국가가 비축 식량을 방출하거나, 긴급히 식량을 수입하거나, 가격 안정 정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는 아일랜드 대기근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과 사회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기근이 남긴 아일랜드 디아스포라

대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해외로 떠나면서 아일랜드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일랜드 사회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 해외 이주는 지금까지도 아일랜드 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이주는 대기근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대기근이 발생하면서 그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 정착한 아일랜드계 이주민들은 항만과 철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족과 친척, 같은 마을 사람들의 이주를 도왔다. 이처럼 해외에 뿌리내린 아일랜드계 주민들이 형성한 이주 네트워크(migration network)를 바탕으로 대기근 이후에도 아일랜드인의 해외 이주는 지속되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에는 3천만 명이 넘는 아일랜드계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는 아일랜드의 현재 인구 약 550만 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이다.

**** 2025년 기준으로 아일랜드의 인구는 548만 4,367명이다(출처: 세계은행). 앞에서 언급한 대기근 당시의 인구 통계는 현재의 북아일랜드(영국의 일부)를 포함한 아일랜드 섬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2025년 통계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현재의 아일랜드를 기준으로 한다.

이들 아일랜드 공동체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을 기리는 성 패트릭의 날(St. Patrick's Day)이 되면 각지에서 퍼레이드를 열고 모국의 전통 음악과 춤을 즐긴다. 이처럼 해외에 흩어져 살면서도 고향과 연결되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모국의 문화를 이어 가는 현상을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한다. 대기근이라는 경제적 충격으로 가속화된 아일랜드인의 해외 이주는 디아스포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어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대기근

대기근은 아일랜드의 언어문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영어가 통용되지만, 원래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어(흔히 게일어라고 불린다)를 쓰는 국가였다. 약 800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영어와 아일랜드어가 함께 사용되었는데, 대기근 시기에 아일랜드어 사용 지역에서 감자 역병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면서 아일랜드어 화자가 대거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아일랜드어 사용 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육·행정·법률 등이 영어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렇듯 대기근은 기존의 언어 변화 과정을 가속화하며 아일랜드의 일상 언어가 영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아일랜드어는 사라지지 않았다.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미래 세대로 계승되고 있고, 거리 표지판을 비롯한 공공 영역 전반에서 영어보다 먼저 표기되고 있다. 이는 아일랜드어를 국가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의 일부로 소중히 지켜 나가려는 아일랜드 사회의 노력을 보여 준다.



△ 아일랜드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된 더블린 시내의 거리 표지판.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본문 내용 보충 자료

1. 오늘날의 아일랜드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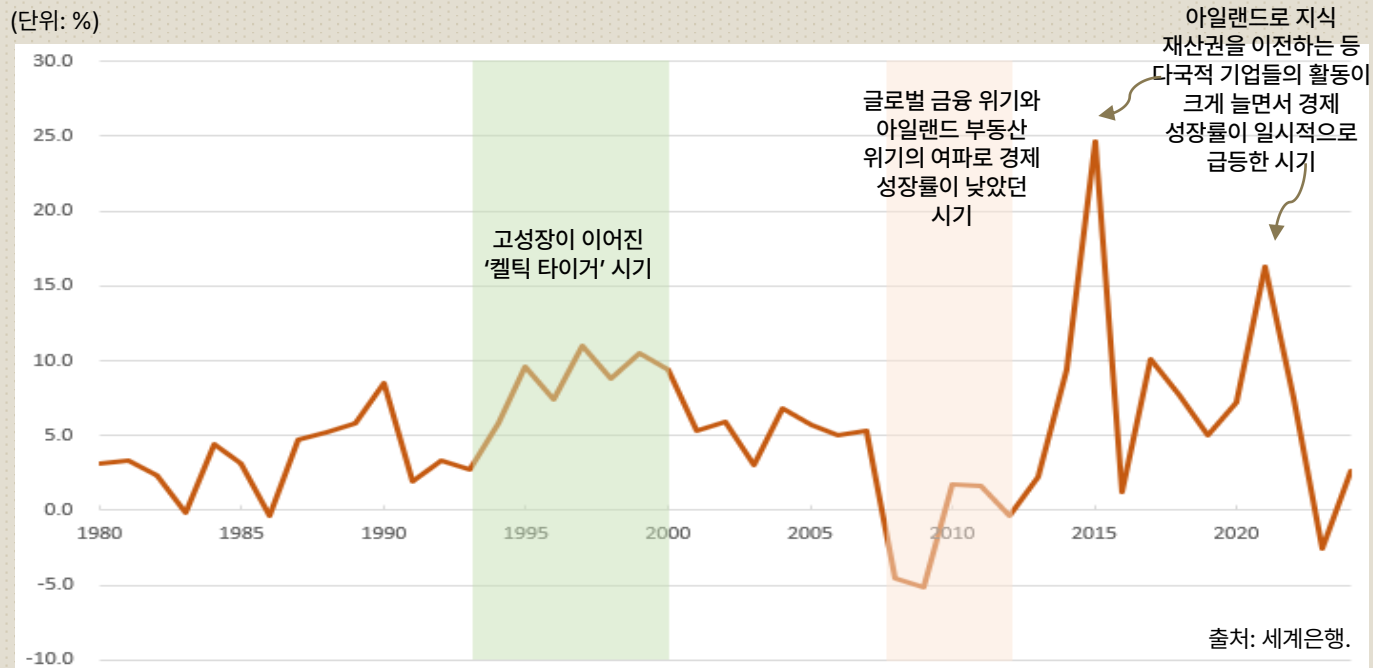
대기근 이후 아일랜드의 농업 구조는 크게 달라졌다. 식량 작물로 감자에 크게 의존하던 농업 구조에서 점차 벗어나 목축과 낙농 등을 중심으로 상업 목적의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오늘날 농업이 아일랜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소고기와 유제품 등은 아일랜드의 주요 수출품이다.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아일랜드의 산업 구조는 점차 다양해졌다.

아일랜드는 인구가 적어 국내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 높은 교육 수준의 노동력 등 해외 기업이 투자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교육 기회 확대에 힘쓰는 한편,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등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펼쳤다. 시간이 흐르면서 1990년대에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수출과 고용이 빠르게 늘어난 데 힘입어 아일랜드 경제는 ‘켈틱 타이거(Celtic Tiger)’**라고 불리는 빠른 성장을 경험했다.

* 아일랜드는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면서 유럽 통합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이다. 유럽 다른 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아일랜드는 수출이 확대되고 해외 투자 유치 여건이 개선되었다.

** ‘켈틱 타이거’는 켈트의 호랑이라는 뜻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일랜드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시기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가 1960~1970년대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린 것에 빗대어 만들어진 용어이다. 켈트는 고대 유럽에 분포했던 민족과 그 문화를 가리키며, 아일랜드는 켈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아일랜드의 경제 성장률(실질 GDP 증가율) 추이



그러나 이러한 고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은행의 대출이 급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꺼지면서 은행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 정부가 은행 지원에 나서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도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EU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원금을 모두 상환했다.

현재 아일랜드에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틱톡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본부나 거점이 많이 들어서 있다. 그런데 이들 다국적 기업이 아일랜드 영토 안에서 창출한 부가 가치는 아일랜드의 GDP에 포함되지만,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소유주가 있는 아일랜드 밖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아일랜드 국민이 실제로 얻는 소득을 파악할 때는 GDP보다 GNI(국민 총소득)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아일랜드의 GNI는 GDP보다는 낮지만,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



2. 아일랜드 대기근 시기의 구호 정책

아일랜드는 1801년 연합법의 시행으로 영국의 일부가 되었으며(아일랜드는 1920년대 초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대기근은 영국의 지배 아래에서 발생했다. 산업 자본주의가 확산되던 19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국 정부는 대규모 국가 개입보다 시장의 기능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지원에 머무르는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의 초기 구호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아일랜드에는 대기근 시기에 건설된 길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길들 중 상당수는 뚜렷한 목적지로 이어지지 않아 당시 구호 정책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다만, 참상이 견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영국 정부는 1847년 2월부터 9월까지 대규모 공공 급식소를 통해 하루 300만 끼의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 출처: Breandán Ó hEithir, *A Short History of Ireland*, The O'Brien Press, 2016, p.33.

3. 연쇄 이주와 이주 네트워크

아일랜드인의 대규모 해외 이주는 연쇄 이주(chain migration)의 대표적 사례이다. 대기근 시기에 먼저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은 새로운 거주지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한 뒤, 고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이주를 도왔다. 먼저 이주한 사람들이 일자리와 숙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항해 비용을 지원하면서 이후 이주가 더욱 쉬워졌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캐나다·호주 등에 대규모 아일랜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먼저 정착한 이주민이 새로운 이주를 돕는 관계망을 이주 네트워크(migration network)라고 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주가 계속 확대되는 현상을 연쇄 이주라고 한다. 이주 네트워크는 대기근이 끝난 뒤에도 아일랜드인의 해외 이주가 지속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4. 디아스포라(diaspora)

디아스포라는 '흩어짐(이산)'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 유대 민족이 고향을 떠나 약 2천 년 동안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온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오늘날에는 전쟁, 기근, 정치적 탄압 등으로 고향을 떠나 해외 여러 지역에 정착한 뒤 공동체를 이루며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모국과의 관계를 이어 가는 현상을 넓은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한다. 대기근을 계기로 이주한 아일랜드인 역시 세계 여러 지역에 정착해 공동체를 형성한 디아스포라의 사례이다. 더블린 소재 EPIC 아일랜드 이민 박물관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에는 약 7천만 명의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으로 이주한 아일랜드인의 후손 가운데에는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와 조 바이든(Joe Biden)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여러 형태의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었다. 생계와 독립운동 등을 위해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이 이룬 만주 한인 사회, 일제의 강제 동원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이룬 사할린 한인 사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탐구 질문 해설

1.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① 역병 ② 소작농 ③ 환금 작물 ④ 자유방임주의 ⑤ 구호 ⑥ 디아스포라
2. 아래 진술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본문에서 찾아 핵심 내용 중심으로 요약해 보세요.

① (X) (근거 예시: 대기근 시기에 아일랜드 농민들은 감자 외에도 밀, 귀리, 보리 등 다른 작물들도 재배했지만, 이들 작물은 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한 환금 작물이었다.)

② (X) (근거 예시: 대기근으로 아일랜드어 화자가 대거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서 아일랜드 사회는 영어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3. 다음은 아일랜드 대기근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사건의 흐름대로 순서를 배열해 보세요.

(③ 감자 재배 의존 심화 → ⑤ 감자 역병 발생 → ① 감자 수확량 급감 → ④ 식량 부족 → ② 해외 이주 증가)
4. 본문을 참고해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① 감자 역병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아일랜드에서만 대기근으로 이어진 이유를 설명해 보자.

(예시: 감자 역병이 발생했을 때 아일랜드에서는 많은 농민이 감자에 의존해 식량을 마련하고 있던 상태였다. 또한 많은 농민이 영국인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어서 경제적으로 취약했다. 여기에 당시 아일랜드를 지배하던 영국 정부가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려 했고, 구호 활동과 지원이 이루어지진 했지만 식량을 신속히 운반하고 분배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

② 대기근 이후에도 아일랜드인들의 해외 이주가 이어진 이유를 설명해 보자.

(예시: 대기근 시기에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미국·캐나다·호주 등으로 이주한 아일랜드인들은 현지에서 공동체를 형성했다. 먼저 정착한 사람들은 가족과 친척, 같은 마을 사람들의 이주를 도우며 이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대기근 이후에도 아일랜드인의 해외 이주가 이어졌다.)
5. 아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① 오늘날의 사회에서 자원을 특정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 학생들은 식량, 에너지, 핵심 광물 등을 특정 국가의 공급에 크게 의존하는 사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특정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자연재해, 전염병, 국제 분쟁, 수출 규제 등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사회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밀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이 발생했다. 학생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특정 공급원에 의존할 때의 위험을 살펴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급원의 다각화, 위기에 대비한 비축 제도의 운영 등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② 오늘날 한 나라나 한 지역에서 인구가 대규모로 유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학생들은 청년층의 해외 이주가 많은 국가나,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나라 지역의 사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나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 의료, 교육 등 필수 서비스 분야에서도 인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인구 유출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오늘날 노동력 부족을 겪는 국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주거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정착을 돕는 정책 등을 펼친다.

6.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이나 오늘날의 아일랜드 경제·사회와 관련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 형태로 적어 보세요. 이 질문들 중 하나를 선택해 조사해 보세요.

-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든 질문을 바탕으로 함께 자료를 조사하거나 토론하는 활동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다. 탐구 과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의 방향은 학생마다 다를 것이다. 또한 같은 질문에서 출발하더라도 각자의 관심과 탐구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탐구가 질문에서 지나치게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교사가 적절한 질문이나 피드백으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 다음은 학생들의 탐구를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의 예이다. 학생들이 질문 만들기를 어려워한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해 자신의 관심에 따라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간단한 것이라도 궁금증이 생겼다면 스스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 감자와 아일랜드의 농업이 궁금하다면?
 - ✓ 오늘날에도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를 많이 먹을까?
 - ✓ 대기근 이후 아일랜드의 농업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 대기근 이후의 사회 변화에 관심이 생겼다면?
 - ✓ 대기근 이후 아일랜드의 인구 감소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 ✓ 많은 사람이 해외로 떠난 아일랜드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 경제 성장에 관심이 생겼다면?
 - ✓ 아일랜드는 어떻게 해서 오늘날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게 되었을까?
 - ✓ 외국 기업의 투자가 아일랜드의 경제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 위의 예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다음 기관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자료가 영어로 제공되는 경우, 웹 브라우저나 생성형 AI의 번역 기능을 활용해 내용을 확인한다.
 -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www.cso.ie): 아일랜드의 인구·경제·사회 등 국가 차원의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ww.oecd.org): 아일랜드는 OECD 회원국이다. 아일랜드를 포함해 OECD 회원국들의 다양한 분야의 통계와 국가 간 비교 자료를 찾을 수 있다.
 - 세계은행(World Bank, data.worldbank.org): 아일랜드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관련된 통계와 국가 간 비교 자료를 찾을 수 있다.
- 요즘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AI가 제시한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출처와 근거를 확인하며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여러 자료를 비교해 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생성형 AI를 학생의 답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탐구를 확장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과정 연계

❖ 이 자료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다양한 과목에 접목할 수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통합사회』, 『경제』, 『세계시민과 지리』 등의 성취기준과 연계해 수업의 목적과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성취기준	활용 방향(예시)	탐구 질문(예시)
- 시장 경제와 지속 가능 발전 [10통사2-03-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비교 평가한다. - 경제학과 경제 문제 [12경제01-02]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파악한다.	산업 자본주의가 확산하던 시기에 아일랜드를 지배하던 영국 정부의 제한적인 구호 정책을 살펴보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탐구할 수 있다.	-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 게 적절했을까? -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는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 오늘날 정부는 어떤 경우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까?
미시 경제 [12경제02-02]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고, 조세, 공공재 등과 같이 시장의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사례를 탐구한다. [12경제02-03] 시장 기능과 공공 부문의 활동을 비교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고, 경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장의 기능과 공공 부문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탐구할 수 있다. 특히 식량과 같은 필수재의 배분에서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 구성원의 생존을 보장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한계를 평가할 수 있다.	-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 식량이 존재했음에도 많은 사람이 굶주린 이유는 무엇일까? - 시장과 정부는 경제 문제 해결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자원 배분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10통사2-05-01]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 네트워크 세계, 세계의 인구와 경제 공간 [12세지03-01] 세계 인구 분포 및 구조를 통해 세계 인구 문제를 이해하고, 국제적 이주가 인구 유출 지역과 유입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대기근으로 가속화된 아일랜드인의 대규모 해외 이주를 통해 인구 이동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이주가 사회와 경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수 있다.	- 대기근 당시 아일랜드인들은 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 대규모 인구 이동은 떠나는 지역과 도착한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 오늘날에도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동하고 있을까?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10통사1-02-0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탐구한다.	대기근으로 인해 많은 아일랜드 사람이 식량 부족과 빈곤에 직면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과정을 살펴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 환경과 삶의 기반을 보장하는 사회적 조건이 필요함을 탐구할 수 있다.	- 경제적 안정은 행복한 삶의 필요조건일까? -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정주 환경)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문화와 다양성 [10통사1-04-02]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전통문화가 지니는 의미를 탐색한다.	영어가 일상 언어로 자리 잡게 된 역사적 배경과 함께, 오늘날 아일랜드어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아일랜드의 노력을 살펴보고 문화 변동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탐구할 수 있다.	- 아일랜드에서는 왜 영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을까? - 실용성과 전통문화의 보존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일까,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일까?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존해야 할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을까?
네트워크 세계, 세계의 인구와 경제 공간 [12세지03-02] 주요 식량 자원의 생산과 소비 양상을 통해 세계 식량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을 비교·분석한다.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 감자에 대한 높은 의존과 농업 구조의 취약성을 살펴보고 특정 식량 자원에 대한 의존이 식량 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탐구할 수 있다.	- 왜 하나의 식량 자원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까? - 식량 위기는 생산량 부족만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의 『질문하는 학생들: 경제로 읽는 우리의 삶』은 지문을 읽으며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질문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개발된 청소년 경제교육 시리즈입니다.
- 이 시리즈의 자료는 ‘들어가며’, ‘본문’, ‘탐구 질문’, ‘본문 내용 보충 자료’, ‘탐구 질문 해설’, ‘교육과정 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의 목적, 학생의 이해 수준, 교수·학습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거나, 내용이나 활동을 추가하는 등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거나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조사와 보고서 작성, 발표 등의 연계 활동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들어가며’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학생들이 ‘본문’에서 전개될 내용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문’과 관련된 사례나 이야기가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됩니다.
 - ‘본문’은 국내외에서 실제 일어난 경제적 사건이나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을 소재로 그 배경이나 원인,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 ‘탐구 질문’은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에서 시작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문항으로 이어지며, 마지막에는 학생이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확장됩니다.
 - ‘본문 내용 보충 자료’에는 본문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배포하거나, 수업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탐구 질문 해설’에는 정답, 예시 답안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열린 문항의 경우, 예시 답안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탐구의 범위와 깊이를 점차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교육과정 연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관련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활용 방향(예시), 탐구 질문(예시)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참고해 수업의 목적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 이 시리즈의 [시즌 1] 자료는 2026년 9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월 1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웹사이트(eiec.kdi.re.kr), 재정경제부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econedu.go.kr)의 KDI 채널(크디큰 경제)에 게시됩니다.
- 출력할 때는 ‘용지 크기에 맞춤’으로 설정해 주세요.
- 자기 주도 학습 및 수업 목적 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문의나 제안 사항, 활용 후기를 sslee@kdi.re.kr로 보내 주시면 자료 개발과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근은 아일랜드 경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는 『질문하는 학생들: 경제로 읽는 우리의 삶』 [시즌 1]의 1호 자료(2026년 9월 공개)로, 김혜란 서울여자고등학교 선생님, 박혜진 양지고등학교(안산) 선생님, 이산성 서초고등학교 선생님(이상 가나다순)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되었습니다.